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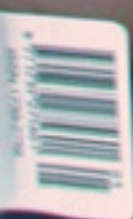
LAVIE D'OR

may 2007

contemporary magazine 라비도르



TOKYO 東京日和
blooming oaks
THE garden of eden
spot attack
the precious cutlery



LOEWE
VISION

젊은 건축가들의 거침없는 상상 DAVIDE MACULLO & OBRA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뮌 클러스... 언제까지 거장들만 치켜세울 것인가. 이제는 그들의 뒤를 이어 독창적인 상상력을 무기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오브라 건축사무소의 파울로 카스트로와 제니퍼 리, 그리고 다비데 마쿨로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브라 건축사무소 OBRA Architects 의 파울로 카스트로와 제니퍼 리. 그들은 2006년 뉴욕 모마 MOMA 와 P.S.1 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인 '템퍼러리 Temporary' 미술관 프로젝트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젊은 건축가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 활동하는 다비데 마쿨로 Davide Macullo 역시 마리오 보타, 헤르조그 드 뢰름, 노만 포스터, 렌조 피아노 등과 더불어 지난해 타셴 Taschen사에서 선정한 스위스의 대표적인 건축가 17인에 선정되어 책에 실렸고, 최근 연간의 <월페이퍼 Wallpaper> 잡지에서 뽑은 세계 100인의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 그룹에도 포함됐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지라온 배경과 지형, 문화는 다르지만 자신들만의 차별성 있는 사색으로 그들만의 도시를,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학적인 조화가 엄격한 유기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기능적이고 모던하게 보인다. 반면 외부의 채광과 자연적인 시야가 내부의 슬림하며 간결한 기하학적인 구조와 어우러져 모던하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편안함을 안겨준다.

침실은 1층, 부엌과 거실은 2층에 위치해 외부의 시야를 최대한 즐기게 되어 있다. 모던하고 기능적인 부엌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식육을 돌우는 재료인 나무 소재 테이블로 구성되었다. 유리로 된 부엌의 벽은 내부 공간과 주변의 자연이 서로 교차되는 느낌을 준다. 북쪽 큰 벽에는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프레임으로 된 창을 냈고, 내부 공간은 새로 형성되는 안뜰을 향해 확장시켰다. 큰 북쪽 벽은 주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석판들의 형태로 마치 장식된 율타리 같은 인상을 준다. 발코니는 추가되는 거주 공간으로써의 기능과 건물에서 '부드러운' 내부의 기능을 표현한다. 밖으로 뚫린 공간은 부분적으로는 덮여있고, 부분적으로는 반투명한 재료들로 보호되어 특별한 소규모의 기후대를 만든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태양의 위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두운 바닥판으로 겨울에는 태양열을 모으고, 여름에는 그늘진 사이 공간을 제공하여 태양열을 차단하도록 했다.

알프스에 위치한 주말 주택 로사 하우스 Casa Di
Rosanna a Riva는 자연적인 정체성이 탐구된 주택이다. 이 집은 마을 언덕에서 오래된 마을을 볼 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막공자봉을 채택했다. 빛은 공간을 구성하고 자연은 디자인 컨셉트로 사용되었다. 지극히 작은 규모로 간이 차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변 경관이 뛰어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내부의 창살을 통해 외부의 자연이 집 안에 스며들어 마치 공간의 일부 같은 느낌을 준다. 시골의 오래된 교회 옆에 도시적



요소의 건물이 끼어들었으나 단순한 형식이 오히려 관조적이고 철학적인 느낌을 준다.

현재 스위스, 이탈리아 및 유럽 등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마글로는 한국에서도 보광피닉스파크 제주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마리오 보타의 그늘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중앙감 있는 건축 세계로 대중들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리오 보타와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에 대한 그의 자존심이 마글로의 작업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다비데 마잘로의 견고한 중량감

다비데 마잘로는 루체른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루가노 예술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는 1990년부터 마리오 보타 사무실에서 일하며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스위스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인도,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전 세계 500여 개의 프로젝트 대니저로 일해 왔다. 현재 그는 '마리오 보타의 오른팔'로 불리며, 마리오 보타와의 협업은 물론 단독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마잘로가 자란 스위스 티치노 지방의 루가노는 지형적으로 매우 험준하다. 이러한 마잘로의 성장 환경은 그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건축은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 견고한 외관이 특징이며, 엄격한 규제 속에서 건물의 수직과 수평적인 변화의 유기적 유희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외부의 자연 공간들이 이 규율 속에서 푸른 풍경처럼 마다나도록 대지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구조물을 만든다.

이러한 예는 고르두노 하우스 Casa a Gordone에서 찾을 수 있다. 고르두노 하우스는 티치노의 오래된 마을과 1970년대부터 확장된 마을의 경계선에 지어진 견고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주택이다. 주택의 남쪽은 초등학교의 정원을 향해 있고, 서쪽 면은 건축주가 소유한 고택에 인접해 있다. 이 건축 프로젝트의 목적은 마을 중심부 주변에 일종의 정체와 같은 모습을 만들면서 대지의 특색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쉽고 병세계적인 재료가 된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이 집은 매우 견고한 정체처럼 보인다. 내부 공간은 수직과 수평간의 기하 →

1. 오래된 마을의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바깥지붕을 채택한 주일 주택 로사 하우스. 다비데 마잘로.

2.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Freedom Park Witness Memorial'의 내부. 오브리.

3. 고르두노 하우스의 부엌과 거실은 연 위층에 위치해 외부의 시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다비데 마잘로.

4. 수직과 수평간의 기하학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다비데 마잘로의 고르두노 하우스.

5. 창살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은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나 요소로 활용되었다. 다비데 마잘로의 로사 하우스.



1. 1층 입장에서 2층에 있는 부엌과 거실로 오르는 계단. 다비데 미켈로의 고프루노 하우스는 간결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내부 공간이 특징이다.
2. 50년하고 동시에 자연적인 편안함을 안겨주는 공간이 특징이 있는 고프루노 하우스.
3. 마치 견고한 현재처럼 보이는 고프루노 하우스는 다비데 미켈로의 건축 특정한 견고한 중량감이 들어있다.



1.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한 P.O. 1 일문 건축가 프로그램에서 당선된 오쓰카 건축사무소의 'SEATFUSE'.
2. 미국에서 사립으로 차관 운영되어 있던 'Freedom Park Museum'의 이미지를 본 오쓰카 건축사무소.
3. 'Freedom Park Museum'의 전체 계획에는 천원당 100달러의 예산으로 원본 대신 천원당 100달러를 인정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4. 자비를 지어 주셨던 후원자의 뜻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1000만 원의 예산이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Freedom Park Museum.

OBRA의 거대한 상상

과울로 카스트로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산 후안 국립대학교와 컴립비아건축대학에서 빌딩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스티븐 홀과 리처드 마이어 건축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았다. 제니퍼라는 위성천에서 태어나고 뉴욕의 루피 유니온아트스쿨 건축부를 거쳐 하버드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뉴욕의 '휴머니티를 위한 거주 공간'^{Habitat for Humanity}에서 사이먼 운저스, 스미스 밀러 + 호킨슨 건축, 그리고 스티븐 홀 등과 함께 프로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2000년, 각기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들이 'OBRA Architects'라는 이름으로 뉴욕에 문을 열었다. 아직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은 로트아일랜드 스쿨, 시카고의 아테네움 미술관, 토론토·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등 많은 작업을 해 왔으며, 2006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전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그들의 숨 가쁜 행보 덕에 2005년에는 뉴욕 건축 리그에서 신예건축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미술관에 의해 수여되는 아메리칸 건축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을 주목하게 한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역시 'BEATFUSE'다. 오브라는 2006년 P.S.1 미술관의 여름 프로젝트로 진행된 'BEATFUSE'에서 7만 달러라는 저예산으로 그들의 개성을 잘 살려낸 작업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뉴욕의 가장 인기 있는 현대미술관인 P.S.1 미술관 앞마당에 설치된 이 단기 건축물은 합판과 폴리프로필렌망을 사용하였고 이것들을 7개의 격자눈금 모양의 둥근 지붕을 만들어 연결시켰다. 그들은 이 작품을 '콘서트나 아코디언 모양을 한 육각형의 손풍금'이라고 정했는데

풀벌레와 같은 지붕은 바닥과 벽면에 물결무늬 패턴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이 설치물의 설계에는 나무로 만든 조수나

님을 사용한, 3개의 야외 공간인 'Caldarium', 'Tepidarium', 'Frigidarium'은 기온에 따른 다양함과 편안함을 건축물로 실현한 것이



풀, 안개 장치, 빛 조절 장치 등이 포함되었다. 그중 빛 조절 장치는 안개 속에서 계속적으로 실루엣이 변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의 시원스러움을 위해 빛을 중심으로 조수, 풀, 그리고 안개 장치를 원형으로 배치하였다. "밤에는 수증기가 빛 주위로 구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끊임없이 실체가 없는 형태들이 변할 것이다. 마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가 폭풍에 포위되어 있듯이..."

이 구조물과 더불어 일련의 방사상의 형태로 나무 잎장육 의자들이 마당에 설치되었고, 방문객들이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쾌적하게 머물도록 냉동 상자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도 구상되었다. 로마시대의 방탕, 미온탕, 온탕의 개

다. 예를 들어, 'Frigidarium'은 온욕 기포 단 열재와 얼음을 사용함으로써 여름의 열로부터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상되었다. 이곳은 해마다 P.S.1의 뜰에서 열리는 대중 가수 공연인 'Warmup'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짧은 건축가 프로젝트에서 오브라가 당선된 것에 관해 P.S.1의 아라나 헤이스^{Alana Heiss} 관장은 이렇게 평했다. "오브라의 디자인은 거대한 흰색 타폰(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뱀)이 뜰에서 몸을 비틀고 있는 모습과 닮았고, 실내 공간은 마치 빛을 내뿜는 꿀프공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독창적인 작업에 당연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글 | 김효선 Art303 대표 겸 예술진로교원 에디터 | 심이현